# e-모빌리티의 도시 영광 세계로 미래로 뻗어간다

지난해 9월26~30일 영광군 일원에서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렸다.

성장 가능성 무한한 미래 먹거리
그린뉴딜 핵심과제 포함 적극 육성
2025년까지 2581억 국책사업 추진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선두주자
국제 경쟁력 갖출 다양한 지원 필요

지난 6월 'e-모빌리티 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자동차연구원에 전시된 소형 전기자동차를 둘러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정부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이 중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되면서 '영광 e-모빌리티'가 이젠 지역을 넘어 국가 주도로 지구촌 e-모빌리티 업계를 선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 e-모빌리티' 국가가 키운다

e-모빌리티 산업은 지난해 10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과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미래 신산업으로서 언급된 바 있다. 전남도에서는 이미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중 블루트랜스포트의 핵심으로 e-모빌리티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월17일 'e-모빌리티 기업 투자협약식'에서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같은 e-모빌리티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미래 먹거리"라며 "e-모빌리티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점검을 하고 ㈜대풍EV자동차 수출기념식에도 참석했다.

e-모빌리티 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매년 25%씩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밀집지역과 교통 소외지역의 효율적인 이동수단, 물류배달, 공유서비스 등으로 기존 교통체계와 어우러져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과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AI, 로봇, 드론 등의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영광군은 대한민국 e-모빌리티 산업의 시작이자, 현재 e-모빌리티가 집적화 된 유일한 지역이다. 2014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상태에서 산업부,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옛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국내 유일의 e-모빌리티 전문 연구센터 건립,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유치 등으로 영광의 e-모빌리티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영광군은 산학관 협력 사업으로 영광공고에 'e-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했다.

올해 산업부의 2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5년까지 9개 사업, 2581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실공히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미래 이동수단 메카는 '영광'

영광군은 e-모빌리티 디자인, 연구개발, 평가, 인증, 실증, 생산, 홍보, 체험, 판매까지 전 주기 과정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e-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해 e-모빌리티 산업과 관련 기업을 널리 알렸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법·제도 개선까지 가능한 지역이 됐다.

앞으로 국내 최초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국내 최초 개인용이동수단(PM) 민간보급, e-모빌리티 배후단지 및 테마파크 조성, e-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과의 융합 등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광군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산업에 대한 불안감, 다른 지자체의 경쟁, 지방비 매칭의 부담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가 많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밀려 정부의 지원도 미흡해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특히 관련 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영세한 사업구조로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단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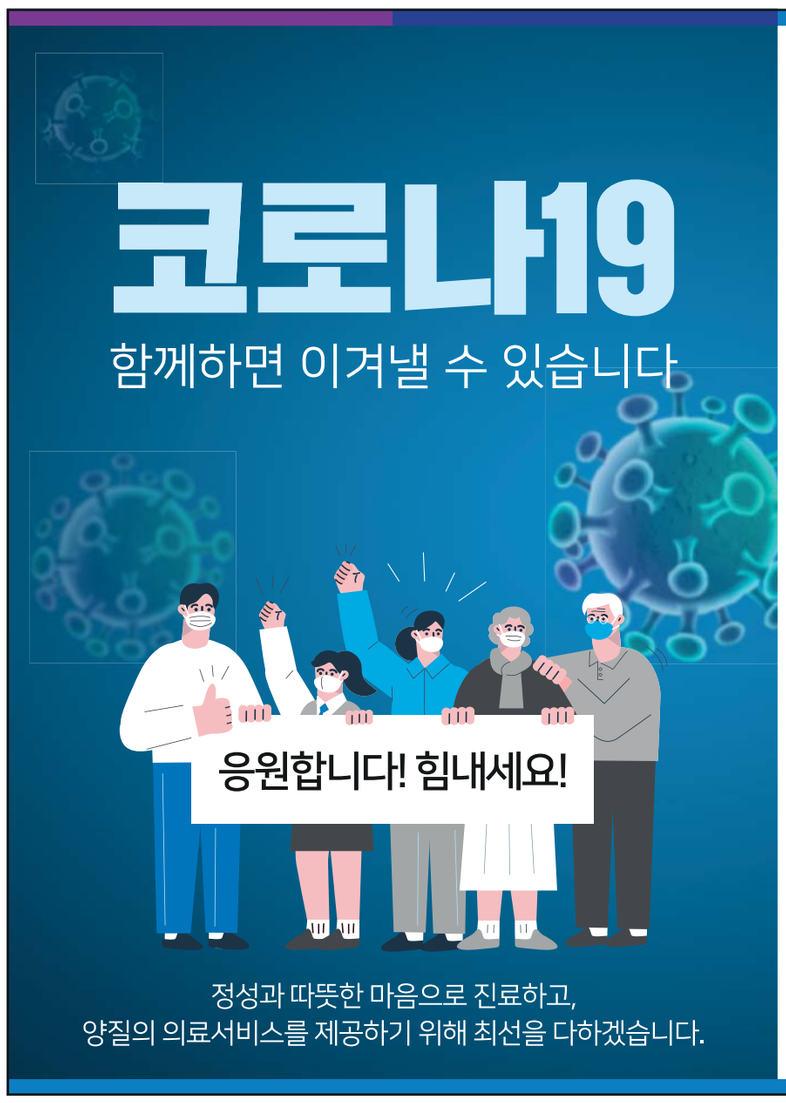
영광군 관계자는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이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절실하다"며 "각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전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영광의 e-모빌리티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모빌리티는 향후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으로 산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저변에 영향을 끼치는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사업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시티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래이동수단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영광군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지난 6월5일 영광스포티움에서 PM(개인형이동수단) 주행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www.gadgethosp.co.kr
가제트병원 GADGET HOSPTAL
어깨/팔꿈치/손목/무릎 중점치료
인공관절, 체외충격파, 무릎줄기세포
☎ 062-710-9111
광주 남구 대남대로127번길 5(방림동)

광주병원
친절한미소 고객을 위한 실천
진료과목
내과 - 심혈관센터 - 인공신장실 - 소화기센터, 산부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치과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39번길51(두암동)
(동광주IC 삼성홈플러스 맞은편)
대표전화. 260-7000 FAX. 260-7111

통합의료 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김 재 휴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 급 실 062.602-6119

www.gcdh.or.kr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 주 시 립 정 신 병 원
우암의료재단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씨티병원
씨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씨티병원 062.460-7000
응 급 실 062.460-7119
씨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062.604-5000

진료내용 : 모발이식, 탈모치료
더모 헤어플란트
미지예피부과의원
150331-공-70246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
(세정아울렛 옆)
대표전화 062.223-5824